

금요 수필

가시 감자

별 한 줄 들지 않는 창고 한 귀퉁이에서, 가시를 뜯은 감자를 뒤집는다. 볼보지 않아도, 그 감자는 살아남아 스스르...



이 승 숙 수필가

조복빛 짙은 빛이 났을 것이다.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까맣게 익고 있었다. 식물의 가시는 외적 변화를 견디며 생김...

이제는 가시덤불이 뒤엉켜 있어 문을 믿었으나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손은 대면 단발과 가시에 찢려...

토한다. 처음엔 주성평이의 주시려니 해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한참 후 관할권을 돌아왔을 때...

독자제언

“가정의 달 5월 행복의 울타리, 관심이라는 열쇠로 지켜주세요”

꽃들이 만개하는 5월 우리는 어린이 날, 아버지날을 맞이하며 평소 잊고 지냈던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곤 합니다.

사회는 파편화된 일상은 가정 내 위기 상황을 더욱 고립시키곤 합니다. 우리 경찰은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 없는 지민 여러분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둘째, 가정폭력 없는 평온한 일상을 수호하겠습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와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경찰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사설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신청·지급 시작 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으로 각각 55만원과 45만원을 받는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전주매일.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